

당신이 모르는 당신

이 길은 첫눈조차 거무튀튀한 진흙으로 남는 길
유난히 부끄러움에 예민한 당신은 이곳에서
상처받을 일도 속 쓰릴 일도 많았다

옳은 말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입에 걸려 넘어지는 길
어금니가 드러난 일그러진 얼굴들을
당신은 잊지 못한다
잊을 수가 없다

넘어질수록 누운 듯 편안해지는 기묘한 길에서
그림자에 온 몸 삼켜진 살아 있는 검은 무덤이 도사리는 길에서
두 발로 걷는 당신은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다

당신 역시 그림자가 없겠는가
다만 외면하지 않고 직시했을 뿐
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수 없다 하여
모든 걸 내던지겠는가
당신은 그저 묵묵히 걸을 따름이다

심술 난 이들이 진흙에 몸 비비며 당신 바짓단을 잡는다
기어코 넘어뜨리려는 손들에 비틀거리면서도 걷는 당신을
땀과 눈물이 맑게 닦는다

당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
유리인 줄 알고 당신을 깨트리려 하지만

당신은 호수

파문이 일어도 흩어지지 않는 세계

언제까지고 그럴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짓눌린 채
담담히 걸어가는 당신 발자국이
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
당신은 알까
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나침반으로 삼는 것을
당신은 알고 있을까

아니
당신은 모른다

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떨림을 간직한 당신의 밤에
유난히 많은 별들이 반짝인다는 걸
당신은 알 수 없듯이